



거울이 두렵다

울산여자고 1-2 이서연

너를 바라보기 두려웠다
눈이라도 마주치는 순간
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에
숨이 막힐 것 같아서

꾸밈없이 진실만 드러내는 네가
보정 없는 내 마음을 들추는 순간
하루 온종일 퐁퐁 싸매온 이 두려움을
씨익 웃으며 풀어버릴 것 같아서

나는 사실
내 등 위로 던져지는 책임감이 무겁다.
날카로운 말에 웃음 짓기 위해
뼈그덕뼈그덕 도르래는 입꼬리를 올린다.
고장 난 눈물샘은 며칠 전 서비스센터에 보냈다.
마음은 파스를 덧대도 도무지 낫질 않아
지독한 악취로 머리가 아프다.

‘성적 올려야지.’

‘시험 기간에 글짓기 대회가 웬 말이야.’

일렁일렁 들려오는 생각이

아픈 마음까지 흐를까 봐

오늘도 덕지덕지 생각을 포장했다.

고개를 들고 똑바로 바라보면

너를 보기 두려운 이 마음을

보란 듯이 눈치채버릴까 봐

나는 그게 두려웠다.

거울을 들여다보면

그 속의 내가

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을

뻥-히 응시하고 있을 테니

